

# 한국 디자인 진흥 전략의 발전 과정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Progresses of the Design Promotion Strategy in Korea since 1950s

정경원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Chung, Kyung-Won

Professor of Industrial Design, KAIST

• Key words: Design Promotion, Design Strategy, Design Promotion Strategy

### 1. 디자인 진흥에 대한 관심 증대

최근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고조와 더불어 디자인 진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디자인 진흥 전략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이 불과 40여 년 만에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진흥전략이 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디자인 진흥 전략을 발전 모델로 삼고 있다.

이 연구는 디자인 진흥의 본질, 세계 디자인 진흥의 역사 및 현황, 한국 디자인 진흥 전략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고찰을 통해 디지털 정보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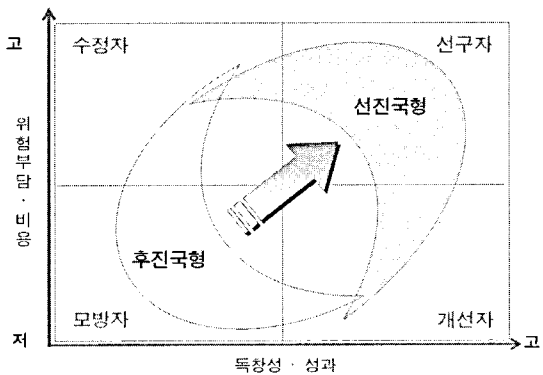
### 2. 디자인 진흥전략의 본질

디자인 진흥은 국가에서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책 수립, 우수디자이너 양성, 디자인 산업 기반조성, 디자인 개발지원, 디자인 이벤트 개최, 국제 교류, 기초조사 및 트렌드 연구 등을 포괄한다. 디자인 진흥전략은 디자인 산업의 육성에 가장 유리한 방안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계획이라 정의 된다. 따라서 디자인 진흥전략의 수립에는 전략적 지식체계, 환경에 대한 통찰력, 상황 분석력 및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요구된다. 디자인 진흥 전략과 관련 지어 여러 나라들이 실제로 취하는 자세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혀 새로운 전략의 수립을 도모하는 나라가 있는 가하면, 이미 다른 나라가 수립한 전략을 개선하는 나라가 있으며, 단지 선진국의 전략을 답습하는 나라들도 있다. (표 1)

[표 1] 디자인 진흥 전략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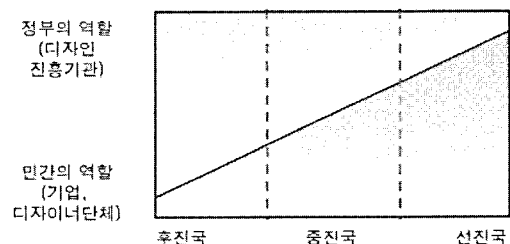
| 전략             | 특성                          | 조건                              | 장단점                              |
|----------------|-----------------------------|---------------------------------|----------------------------------|
| 선구자 (Pioneer)  |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독창적인 전략 개발     | 강력한 리더십, 연구 개발 능력, 적극적인 자세      | 개발비용, 위험 부담, 성공 시 보상 등이 모두 큼     |
| 개선자 (Improver) | 선구자에 대한 비교 우위 요소 개발 및 신속 대응 | 선구자의 전략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 비용에 비해 보상은 크지만, "만년 2위" 위험성      |
| 수정자 (Modifier) | 성공전략을 선별적으로 수정하여 활용         | 가장 적합한 전략적 요소를 추출하여 적절히 수정하는 능력 | 적은 비용과 역량으로 특정 부문에서 성공 가능성       |
| 모방자 (Imitator) | 남의 전략 복제 또는 모방을 통한 답습       | 복제 또는 모방할 대상의 선정 능력             | 남보다 뒤처지거나, 잘못 모방하여 손해 볼 수 있는 위험성 |

디자인 전략의 수립에는 나름대로 필요한 역량이 있는데, 선구자와 개선자의 경우에는 고도의 연구개발능력과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따라서 제반 여건이 성숙되어있는 선진국에서는 선구자나 개선자를 추구하고, 후진국들은 수정자이나 모방자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성장하게 되면 전략도 모방자에서 선구자로 변화하게 된다. (그림 1)



[그림 1] 디자인전략 별 포지셔닝

한편 디자인 전략의 주체는 정부로 대표되는 디자인진흥기관과 기업과 디자이너협회 등으로 이루어지는 민간부문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국가 차원에서 다각적인 진흥활동을 전개한다. 후자는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디자이너협회 등의 권익 보호 활동을 포함한다. 여기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은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과 관련이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후진국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반면, 선진국이 될수록 민간부문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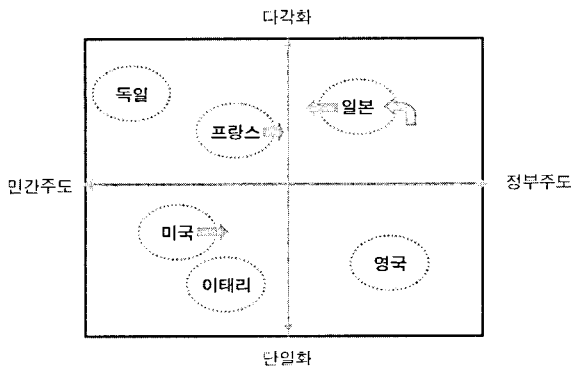
[그림 2] 경제발전에 따른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차이

### 3. 세계 디자인 진흥의 발전 과정 및 현황

세계 디자인 진흥의 역사는 18세기 경 섬유제품의 고급화를 위해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문양집(pattern book)을 출간한 프랑스의 리옹에서 시작되었다. 영국은 1830년대부터 프랑스와의 섬유전쟁에서 이기려고 디자인 교육과 디자인 박물관을 건립을 추진했다. 1907년에 설립된 독일공작연맹(DWB)은 정부와 민간부인이 협력했던 전형적인 사례이다. 최초의 현대적 디자인진흥기관은 1944년에 설립된 영국의 산업디자인카운슬(CoID)이다. CoID는 1970년 디자인카운슬로 명칭을 바꾸었다.

현재 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에 가입된 디자인 진흥기관은 40여개에 이르고 있는데, 주로 산업이 발달된 유럽(22)과 아시아(11)지역에 몰려 있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디자인 진흥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디자인 진흥활동은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영국과 일본은 전자, 독일과 미국 등은 후자에 속한다. 영국과 미국은 단일화, 일본과 독일은 다각화되어 있다. (그림 3)



[그림 3] 주요 국가의 디자인 진흥 현황 및 흐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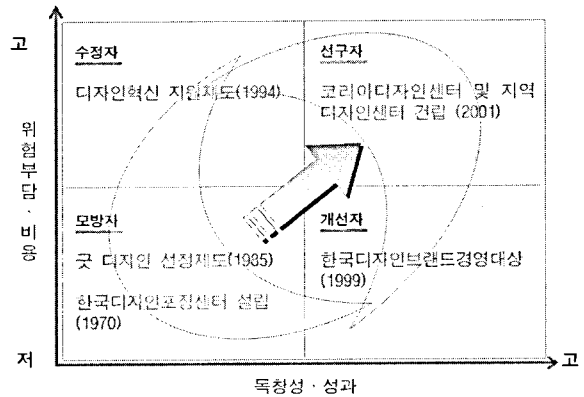
### 4. 한국 디자인 진흥 전략의 발전 단계

우리나라의 디자인 진흥은 전형적인 정부주도형이다. 1958년 한국공예시범소의 설립을 계기로 시작된 한국의 디자인진흥전략은 매 10년을 주기로 변화를 거듭하며 발전되어왔다.(표 2)

[표 2]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디자인 진흥전략의 변화 추이

| 년대   | 주요 산업   | 국민소득(\$)/수출고(억\$) | 디자인진흥의 특성 | 디자인진흥기관의 명칭              |
|------|---------|-------------------|-----------|--------------------------|
| 1950 | 가내수공업   | 67 / N/A          | 공예산업부흥    | 한국공예시범소 (1958-1960)      |
| 1960 | 경공업     | 87 / 1(1964)      | 미술 수출     | 한국수출디자인센터 (1965-1970)    |
| 1970 | 조립산업    | 249 / 8.4         | 디자인·포장 진흥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70-1997)    |
| 1980 | 중화학공업   | 1,598 / 175       | 굿 디자인 개발  | 한국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1991-1997) |
| 1990 | IT제조산업  | 5,886 / 650       | 산업디자인육성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1997-2000)   |
| 2000 | IT서비스산업 | 10,841 / 1722.7   | 디자인산업세계화  | 한국디자인진흥원 (2001- )        |

우리나라의 디자인 진흥 전략은 후진국형에서부터 선진국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70-80년대에는 주로 선진국의 디자인 전략을 모방하던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수정자와 개선자 전략으로 변모하였고, 2000년대에는 종합적인 디자인진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선구자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림 4)



[그림 4] 우리나라 디자인 진흥전략의 변화

### 5. 결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디자인 진흥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공모를 통해 KIDP 원장을 선임함으로써 비전문가 영입의 관행을 마감했다. 코리아디자인센터의 완공과 세계적인 디자인 이벤트의 연속 개최와 더불어 디자인 진흥의 패러다임이 “정부끌기-민간밀기”에서 “민간끌기-정부밀기”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초창기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점진적으로는 민간주도형 진흥활동이 자리를 잡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선진국들의 경험과 맥락을 같이 한다. 1994년 영국정부는 디자인카운슬의 설립 50주년을 맞아 예산을 뒤엎고 사업영역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1998년 일본정부는 일본디자인진흥원(JIDPO)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디자인 진흥 사업의 민영화화를 이루었다. 이처럼 민간주도형 디자인 진흥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는 다음 사항을 꼽을 수 있다:

- 첫째, 디자인산업 발전기본법(가칭)의 제정.
  - 둘째,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자생력 강화,
  - 셋째, 한국디자인진흥재단(가칭)등 민간 기구 설립,
  - 넷째, 한국디자인법인단체 총연합회의 위상 제고.
- 결론적으로 동질성과 양(量)으로 대변되는 산업시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질(質)을 추구하는 정보시대의 디자인 진흥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 참고문헌(References)

- Kyung-Won Chung, "Strategies for Promoting Korean Design Excellence," *Design Issues*, Vol. 14, No.2, Summer 1998, pp. 3-15.
- John Heskett, *Industrial Design*,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정경원, *디자인과 브랜드 그리고 경쟁력*, 웅진북스, 2003